

정책보고서 2007-33

국민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한 영양사 인력 수요 파악 및 향후 수급 전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ospect of Supply and Demand for Public Health
Nutritionists in National Health Promotion Program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단**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적인 의견이며 보건복지부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제 출 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국민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한 영양사 인력 수요 파악
및 향후 수급 전망에 관한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 8.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 : 김 혜 련

연 구 원 : 윤 지 현

연 구 원 : 박 혜 련

연 구 원 : 김어지나

연 구 원 : 강 장 미

연 구 원 : 권 순 호

머 리 말

최근 인구의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의료비 부담의 상승, 국민의 삶의 질 변화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의 모색에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식생활 개선과 국민영양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건강증진사업의 정착 및 확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서비스의 요구 증가,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확대, 방문보건 영양사업 활성화, 노인장기요양사업의 도입, 모자보건사업 강화로 보건과 복지 부문에서 영양서비스 수요가 증대될 전망에 있다.

이에 따라 영양 전문 인력 수요도 증가하여, 제반 보건의료 환경 여건의 변화에 대응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건부문 영양사 인력 수급 정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건부문의 영양사 인력 배치와 활동에 관한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으며, 영양사 인력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기초 자료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부문 영양사 인력의 배치 및 업무활동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며, 선진국에서의 영양사 인력의 활동과 수요에 대한 사례를 심층적으로 비교 고찰하고, 향후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및 복지 사업에서 영양서비스 수요와 관련된 여건의 변화를 고려한 영양사 인력의 수급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향후 보건과 복지부문의 영양서비스와 영양사 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책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진은 연구 수행과정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보건복지부 및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에게 사의를 표하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한영양사협회, 그리고 영양사 공급 추계에 도움을 주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송현종 박사께도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저자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7년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문

요 약 문

1. 제목: 국민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한 영양사 인력 수요 파악 및 향후 수급 전망에 관한 연구

2. 연구의 배경 및 연구목적

- ☐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의 저출산 고령화,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의료비 부담이 급속히 상승에 따라 식생활의 개선을 통한 질병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건강증진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국민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서비스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영양 전문인력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환경 여건에 대응한 체계적인 영양사 인력 수급정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
- 본 연구는 단기적으로 보건소 등의 보건부문 영양인력의 부족과 일용직을 중심으로 불안정하게 배치됨으로서 야기되는 영양사업의 안정성·지속성·발전성 측면에서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영양사 인력의 배치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고자 함.
 - 장기적으로는 향후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와 만성질환 예방관리,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등 다양한 영양사업과 방문보건사업, 장기요양보험서비스 도입에 대응한 노인영양서비스 등 영양서비스 증가에 대응하여 중요한 건강증진인력으로서 영양사 인력의 수요를 전망함으로써, 공급 대비 수급을 전망함.
 - 이를 통해 향후 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건부문 영양 전문인력의 확보와 수급 대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둠.
- ☐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와 보건의료 내외 환경여건 변화에 따른 영양사 수요여건을 파악하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보건부문 영양인력과 사업의 현황을 파악함.
 - 둘째, 주요 선진국의 보건부문 영양사의 활동영역과 인력현황을 비교·고찰함.
 - 셋째, 전체 영양사 인력의 공급규모를 추계하고, 건강증진사업 및 관련된 보건사업의

추이와 영양 인력요구 등을 고려하여 보건부문 영양인력수요를 파악함.
넷째, 보건부문 영양사 인력의 수급을 몇가지 대안별로 전망하며, 향후 영양사 활용을 위한 과제를 제시함.

3. 연구방법

- ☐ 보건소의 영양사업 인력 현황, 영양사업 운영현황 및 인력수요에 대한 의견을 전국 251개 보건소의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222개 보건소장으로부터 의견을 수집하였으며, 547명의 영양업무 담당자(비영양사 인력 포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또한 보건소 건강증진 영양사업 실적과 직무분석 및 영양사업 담당자 개인 업무활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19개 보건소의 43명의 영양사로부터 업무활동 조사를 2007년 5~6월에 실시함.
- ☐ 영양사인력의 공급을 추정하는 방법은 의료인력 추계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인구학적 추계방법을 이용하여 2007년, 2012년, 2017년, 2022년의 15년간의 공급을 추정하였음.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 대한영양사협회 등에 요청하여 영양사면허시험 응시 및 합격현황, 2007년 신규합격자의 연령 분포, 영양사면허자 누적수 및 연령분포 등 영양사 인력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은퇴연령은 60세로 가정하였음.
- ☐ 영양사 인력의 수요 추정은 두가지 방법을 적용하였음. 첫째, 영양사의 현재 업무와 서비스 활동유형별로 투입시간에 대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Freeman이 제시한 직접서비스 제공 영양사 인력소요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영양사 인력 수요를 산출하였고, 둘째, Manpower/population ratio 방법을 이용하여 인구 10만 명당 영양사 인력과 보건부문 영양사 비율에 대한 통계를 미국, 유럽, 일본 및 본 연구의 우리나라 조사 자료를 적용하여 인력수요를 추정함.
- ☐ 연구범위:
연구범위는 건강증진 영양사업 중 보건소 건강증진 영양사업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영양사인력 공급추계는 전체 영양사 인력에 대해서 추계하였고, 수요 및 수급에 대한 추정은 전체 영양사인력 중 보건소와 시·도 등 보건부문에 배치되는 영양사 인력을 중심으로 하였음.

4. 주요 연구결과

가. 보건소 영양사업 인력배치 및 사업 운영 현황

- ☐ 조사대상 보건소 영양사의 전국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6월 현재 전국 222개소 보건소 중 92.3%에 해당하는 205개소에 총 363명의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음. 영양사의 고용형태를 보면 정규직·전임계약직 영양사를 배치하고 있는 보건소는 38.2%인 85개소였으며, 총 93명의 정규직·전임계약직 영양사가 배치하고 있음.
- ☐ 보건소 영양 사업에 투입된 인력은 한 보건소당 최소 1명에서 최대 8명으로 평균 2.45명, 조사에 응답한 222개 보건소에 총 543명이 배치되어 있음. 이중 영양사는 일용직을 포함하여 363명이 근무하여 평균 1.63명의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음. 서울이 보건소당 평균 2.25명으로 가장 많은 영양사를 배치하고 있었으며, 제주가 보건소당 1.25명으로 가장 적은 영양사를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이중 정규직 및 전임계약직 영양사 인력은 98명으로 평균 0.42명이며, 264명의 나머지 인력은 대부분 일용직이나 상용직 등 임시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 ☐ 현재 보건소에 배치된 영양사 인력은 일용직을 포함하여 평균 1.63명(대도시 1.93명)으로 이는 전국의 보건소장들이 현재의 사업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보건소 당 적정 영양사 인력(정규직 및 전임계약직)으로 제시한 2.4명(대도시에서는 2.7명)과 보건소 당 최소 필요인력(정규직 및 전임계약직) 1.9명(대도시에서는 2.1명)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일용직을 포함하여도 현재 영양사 인력배치 현황은 보건소장들의 요구도에 비하여 크게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세부 영양프로그램 종류별로 보건소에서 운영현황을 보면 조사대상 보건소의 93.7%가 성인비만예방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91.9%가 유아·어린이 영양교육사업, 87.8%가 고혈압·당뇨병 만성질환자 영양관리·상담, 87.4%가 아동비만예방 및 관리사업, 86.9%가 모유수유 및 임산부 영양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체로 보건복지부의 건강증진사업지침서에 제시된 우선추진사업 중 필수사업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은 전부 80% 이상의 운영율을 보였으며, 고혈압·당뇨병 만성질환자 영양관리·상담은 선택사업임에도 대다수의 보건소에서 만성질환관리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보건소장들이 향후 보건소 내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양사업은 비만예방 및 관리사업(아동 및 성인)으로 99.1%이었으며, 95.9%의 보건소장이 이 사업에서 영양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두번째로는 고혈압, 당뇨, 암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97.3%의 보건소장이 영양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고, 이 사업에 93.2%가 영양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 이외에 90% 이상의 보건소장들이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임산부 건강관리사업, 성인건강관리사업, 노인건강관리사업, 아동 건강관리사업, 식이요법이 필요한 보건소 진료환자의 영양관리 및 상담 등에서 영양서비스가 필요하며, 이들 사업에서 영양사 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았음.
- ☐ 특히 보건소장들은 향후 지역사회와 영양사 인력이 요구되는 분야로 방문보건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영양서비스를 제기하고 있음.

나. 외국의 보건영양 및 지역사회 영양부문 영양사 인력 현황과 활동영역 및 동향

- ☐ 최근의 가용자료를 통하여 미국의 영양사 인력 현황을 보면 미국의 영양사 수는 2004년 47,820명으로, 인구 10만명당 16.28명이었으며, 2000년 공중보건인력통계에서는 공중보건영양사가 6,680명으로 집계됨. 미국영양사협회의 등록영양사(R.D.) 중에서는 2005년 조사시점에서 11%가 지역사회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9%가 WIC을 포함한 공중보건영양사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한편, 등록영양사의 49%는 석사이상의 고학력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 향후 2014년까지 미국의 분야별 직업의 고용전망을 보면 인구의 노령화, 식생활의 개선을 통한 질병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영양사 고용성장률이 평균고용성장률보다 빠를 것으로 예측되고, 지역사회 및 보건영양 분야의 영양사에 대한 고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특히 방문보건영양사에 대한 고용은 약 74% 증가할 전망으로 모든 영양사 직종 분야 중 가장 고용증가 전망이 밝은 분야로 제시됨. 또한 비전형적인 직업분야에서의 영양사의 취업이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비전형적인 직업분야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지역사회 및 보건영양 분야로 나타남.
- ☐ 일본의 관리영양사와 영양사의 직업분야별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영양사의 활동영역

중 공중보건 분야에 배치된 관리영양사와 영양사 인력은 2004년 후생노동성 통계로 4,051명으로 파악되었고, 이중 관리영양사가 3,053명으로 75.4%를 차지함.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시·도와 유사한 수준인 도도부현·정령시·특별구에 294명의 영양사(이 중 관리영양사는 257명), 보건소에 배치된 영양사는 1,342명 (이중 관리영양사는 1,299명), 시정촌 보건센터와 본청에 배치된 영양사는 2,415명 (이중 관리영양사는 1,497명)이 배치되어 있어 보건행정 부문에 상당한 수의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음.

- ☐ 일본은 개호보험 서비스 부문에 2005년 현재 영양사 17,274명, 관리영양사 11,273명이 종사하고 있어 행정영양사 배치인력보다 많은 영양 인력이 배치되어 노인의 건강관리, 질병관리에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 2004년 일본의 인구 10만명 행정영양사(보건소, 시정촌 보건센터 등 공중보건 부문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통계에서 확인된 행정영양사수가 4,051명이므로 2004년 일본 인구 127,776천명으로 나누어 보면 인구 10만명당 3.17명의 행정영양사, 즉 상근 보건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상근직 만을 고려한 수치이므로 비상근직을 포함하면 실제 이보다 많은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을 것으로 보임.
- ☐ 유럽에서 영양사의 활동분야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관리영양사(Administrative dietitians), 임상영양사(Clinical dietitians), 보건 또는 지역사회 영양사(Public Health or Community dietitians)이며, 유럽영양사연합회의 통계에 따르면 유럽 각국의 인구 10만명당 활동 영양사수 현황은 덴마크가 관리영양사로 인구 10만명당 25명 이상,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는 인구 10만명당 영양사는 6~10명이었음. 스웨덴의 경우 관리영양사는 인구 10만명당 21~25명이었으며, 임상영양사는 인구 10만명당 6~10명으로 영양사 면허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 ☐ 유럽 각국의 영양사 면허유형별 활동분야는 병원과 임상분야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분야에 종사하는 영양사 비율도 국가에 따라 차이가 크기는 하지만 높은 것으로 나타남. 오스트리아의 경우 9%의 일반영양사가 보건교육에 종사하고 있으며, 아일랜드의 경우 19%의 임상영양사가 보건교육분야(일차진료의와 같이 일하는 인력 포함)에 종사하며, 룩셈부르크는 10%가 보건교육에, 스웨덴은 14%가 건강센터 및 일차진료의와 함께 일하고 있으며, 영국은 10%의 임상영양사는 보건교육 분야에 20%는 일차진료의와 함께 일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볼 때 대략 10~15%가량의 영양사가 보건교육분야나 일차보건의료 분야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 영양사 인력 공급 현황과 전망분석

- ☐ 우리나라의 영양사자격은 미국, 일본 및 일부 유럽국가에서 영양사 자격이 양성기간과 유형별로 몇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2년, 3년, 4년 양성기관의 졸업과 관계없이 영양사 국가면허자격으로 단일화되어 있으며, 보수교육 이수율 권장하고 있을 정도로 면허자격이 종신으로 유지됨. 2007년 영양사면허누적수는 108,021명에 이룸.
- ☐ 영양사의 취업분야별 배치를 살펴보면 2007년 현재 취업이 파악된 20,194명 중 87.0%인 17,569명이 집단급식소에 종사하고 있으며, 8,571명의 영양사가 학교에 취업하여 집단급식소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체 5,933명, 병원 1,614명, 사회복지시설 690명, 영유아보육시설 781명임. 비집단급식소의 배치 영양사는 2,625명으로 전체의 13.0%이며, 이들은 보건소, 행정기관, 위탁급식업체,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건강상담 분야와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 영양사 인력 공급 추계를 방송통신대에서 진입하는 합격자를 매년 100명으로 산정하여 추계하면, 15년 후인 2022년 면허등록 영양사 수는 현재보다 61,068명 증가한 약 17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었음. 활동영양사 인력은 취업률 20%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12년 24,769명, 2017년 27,748명, 2022년에는 29,489명으로 추정됨.
- ☐ 영양사 인력 공급 추계를 방송통신대에서 진입하는 합격자를 매년 150명으로 산정할 경우 15년 후인 2022년 면허등록 영양사 수는 현재보다 61,767명 증가한 약 17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었음. 활동영양사 인력은 취업률 20%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12년 24,809명, 2017년 27,838명, 2022년에는 29,628명으로 추정됨.
- ☐ 장래추계인구 추계에 따른 인구 10만명당 영양사 공급을 추정하면 방송통신대 졸업 합격자가 100명인 경우, 인구 10명당 면허등록수는 2007년 현재 219명에서 2012년에는 262명, 2017년에는 301명, 2022년에는 343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인구 10만명당 은퇴자(60세를 은퇴로 가정)를 고려한 가용 영양사수는 2007년 현재 215명에서 2012년에는 253명, 2017년에는 281명, 2022년에는 299명이며, 취업률 20%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인구 10만명당 활동영양사는 2007년 현재 44명에서 2012년에는 51명, 2017년에는 56명, 2022년에는 60명으로 추정되어 선진 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많은 영양사 인력이 공급됨을 볼 수 있음.

라. 영양사 인력 수요 및 공급 전망

- ☐ 영양사 인력의 현재 수행중인 영양사업에서의 활동을 근거로 Freeman공식을 적용하여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영양사 수요인력을 산출하면 4.32명이며, 이를 전국적으로 인구를 고려하여 환산하면(19개 조사대상지역의 평균 인구수 304,889명과 전국 보건소 당 평균 관할인구수 193,053명을 고려), 보건소당 평균 약 2.88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어 전국적으로는 727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는 인구 10만명당 보건 영양사 인력 소요로 환산하면 약 1.5명으로 추정됨. 이 산출방식에는 위의 현재 보건소 업무를 근거로 추정하였으므로 향후 보건부문의 새로운 영양업무 요구는 반영되지 않은 추정치임.
- ☐ 현재의 사업과 업무활동을 근거로 사업별로 영양사 수를 추정하면, 조사대상 19개 보건소에서 산출한 평균 영양사 인력 소요는 5.49명인데, 이를 전국의 보건소 평균 인구수로 환산하면 3.53명이 소요된다고 환산할 수 있고 영양사 인력의 현재의 업무활동 기준으로 각 사업별 수행을 각각 고려하면 전국적으로는 887명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
- ☐ 지역사회 주민 5만명당 1인의 기획영양사가 필요하다는 외국학자의 권고안을 근거로 산출하면 251개 보건소에서 필요한 기획영양사 수는 총 999명이며, 여기에 각 시·도에 영양사 배치를 최소한 1명을 배치하여 관할 시군구에 대한 지원업무를 하는 영양사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산출하면 총 1,015명의 기획영양사 인력 수요가 있는 것으로 산출됨.
- ☐ 외국의 10만명당 보건부분 영양사 인구비율을 적용한 영양사 인력 수요 추정을 이용한 결과, 미국의 10만명당 영양사수 16.28명과 보건부분 영양사 배치비율은 각각 11%와 14%로 적용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보건부분 영양사 인력 수요는 867명과 1,105명이었고, 미국에서 보조영양사가 추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2배 이상의 보건영양사 인력수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일본의 경우를 적용하면 2004년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인구 10만명당 3.17명이므로 1,536명으로 수요가 추정됨.
- ☐ 영양사 공급 추계 대비 수요 추정을 통한 공급 전망은 인구 10만명당 영양사 수요가 경우에 따라 1.50~3.17명이므로 대체적으로 평균을 2.3명으로 미국의 보건부분 영양사 2인인 10만명당 2.28명과 유사한 수준임. 따라서 인구 10만명당 2.28명으로 계산하

고, 활동영양사의 10%가 보건부문에 배치된다면, 보건부문 영양사의 수급은 2012년에는 1,359명, 2015년에는 1,650명, 2022년에는 1,826명이 공급초과하며 점차 공급초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됨.

- ☐ 위에서 산출한 영양사 인력 수요 추정치들은 현재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영양사 수와는 큰 차이를 보임. 본 연구에서 222개 조사대상 보건소에 현재 배치되어 있는 영양사 인력(정규직 및 전임계약직 98명, 일용직 등 임시직 265명을 포함) 363명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어 현재의 업무활동에 요구되는 인력도 충분히 배치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그러나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전체 보건소에 배치된 영양사 수 자체보다는 현재 배치된 영양사 인력의 70% 정도가 일용직 등의 임시직 인력으로 충원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임. 일용직 등 일시적 고용 인력의 비중이 높은 현실여건에서는 이들이 영양사업에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기에 제약이 큼. 건강증진 영양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영양인력의 고용여건의 개선이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 볼 수 있음. 우선적으로 보건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인 이상의 영양사가 정규직이나 전임계약직으로 확보되어 있지 않은 보건소에 적어도 1명 이상의 영양사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임.
- ☐ 영양사인력 수급추정은 영양사의 공급추계치와 대비하여 가용영양사 인력의 20%가 활동영양사로 보고, 그중 10% 및 15% 수준으로 보건부문에 종사한다고 가정하여 상기의 인력 수요와 대비한 인력 수급을 추정하였음. 그 결과 인구 10만명당 인력 수요 대안을 적용한 어느 경우에도 보건부문의 영양사 인력은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되는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물론 보건부문 영양사 인력의 공급은 수요 자체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며, 수요 자체가 향후 인구 노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건강증진사업의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영양서비스 증가 등의 유인으로 새로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

바. 영양인력 활용을 위한 향후 과제

- ☐ 보건부문 영양사 수요와 실제 영양사 배치 상황과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안정적인

영양사 인력의 배치가 요구됨.

- ☐ 영양사 인력 공급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 건강증진사업에서의 영양사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한 양질의 인력 확보가 요구됨.
- ☐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방문보건사업, 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영양사 인력의 참여와 역할 제고가 요구됨.

5.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 첫째, 보건소 영양사업 인력의 현황파악과 사업운영 현황 제시를 통하여 보건소의 사업에 요구되는 안정적인 영양사 인력의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
- ☐ 둘째, 향후 보건부문 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영양 전문인력의 확보와 수급 대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즉, 향후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와 최근 시범사업을 거쳐 확산이 가능한 다양한 건강증진 영양사업, 즉 임신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WIC), 노인건강증진 허브사업, 식생활정보센터 운영, 도시형 보건지소 사업 등에서의 영양업무, 나아가서 노인 장기요양제도에서 새로운 영양서비스에 요구되는 영양사 인력의 활용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
- ☐ 셋째, 영양사 인력의 공급과 수급 계획, 관련 제도의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인 국가면허체계에서 양성되는 영양사 인력의 활용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수급을 조정하기 위한 관련 정책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

◇ 색인어: 영양사업 영양사 인력 수요 공급, 영양사 수급, 건강증진 인력

SUMMARY

A Study on Prospect of Supply and Demand for Public Health Nutritionists in National Health Promotion Program

Objectives: As burden of diseases and health expenditure increase due to low birth rate, aging population and noncommunicable chronic disease, the importance of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through nutrition improvement is being highlighted. As nutrition service needs for national health promotion programs expanded, a systematic demand and supply plan for dietitian workforce i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the increased needs on the nutrition professional in the field of public healt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situation of nutrition workforce and their nutrition services in public health centers, and to prospect the supply and demand for dietitians in the public health fields in the context of the progress of health promotion programs and the related health services.

Metho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22 out of 251 directors 547 of nutrition services workers(including non-dietitians) at health centers during May to June of 2007. The job analyses on nutrition activities and performances were conducted from 43 dietitians in 19 health centers. The dietitian supply was estimated for the 15 years between 2007 and 2022 using population projection approach. Two methods were applied to estimate the dietitian demand. The first is Freeman's approach to estimate the demand for dietitians providing direct services based on the current job and activities. The second is to use manpower/population ratio method representing the number of dietitians per 100,000 in public health fields. Nutrition manpower/population ratio were applied to cases of U.S., Europe, Japan and Korea investigated in this study.

Results:

- 1) A total of 363 dieticians were working in 222 health centers. The number of dieticians working in health centers across the country is average at 1.63 persons including temporary workers (1.93 persons for metropolitan areas), which fell far short of the expected adequate number of 2.4 persons (2.7 persons for metropolitan areas), and the least required number of dieticians(as regular workers) of 1.9 persons(2.1 persons for metropolitan area) suggested by health center directors. This suggested that the dietician pool in public health fields much smaller than it needs to be.
- 2) Based on population projection approach, the supply of dieticians in public health fields was estimated to be in the range between 2,124~3,186 persons, and the demand between 867~1,536 in 2007.
- 3) Above figures suggest that the 363 dieticians(including regular 98 dieticians and 265 temporary dieticians) allocated in 222 health centers fall far short of the needed level.
- 4) Continuous excessive supply of dietitian workforce is prospected compared with any of alternative demand projection of dietician workforce in the public health field.

Conclusion:

To reduce the dietician supply/demand gap in the public health sector in Korea, it is necessary to grow adequate and stable dietician manpower. On the other hand, measures will have to keep the dietician supply from growing too large. Also, high-quality dietician workforce is required to address the increase of demand for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programs. In an increasingly aging society, the role of dieticians in elderly nutrition care in home-based and long-term care settings also should be emphasized.

Key Words: supply and demand for dieticians, health promotion program